

평화당 '중립파 3인 거취' 관심 집중

잔류파 '이미 실패' vs 탈당파 '명분 충분' 첫날부터 기싸움 양측 조배속·황주홍·김광수에 러브콜...추가 이탈자 '촉각'

민주평화당 대규모 탈당 사태 이후, 평화당과 탈당파 모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서로 각을 세웠다.

평화당은 13일 탈당파를 겨냥해 '명분이 없어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한 반면, 대안정치는 '낮은 지지율보다 더 큰 탈당 명분은 없다'고 응수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탈당 의원들에 대해 "명분이 없어 민심이 합류하지 않는다"며 "이미 탈당파는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탈당에 명분이 있었다면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

졌겠지만, 인터넷의 (탈당 기사 관련) 댓글을 보면 칭찬 글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당 후 첫 대안정치 회의에서 "명분 없는 탈당이라는 일부 반발이 있지만, 그동안 (평화당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태극기부대' 보다 못한 지지를 받았다"며 "이보다 더한 명분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변화와 개혁에는 항상 우려와 비판이 따르지만, 개가 짊어도 기차는 달려가야 한다"며 "이미 정계개편의 거

대한 흐름은 시작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에 들붙처럼 변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안정치는 앞으로 국회 비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당창당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새 인물 영입에 집중하며 신당 창당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서류상 탈당 일을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14일) 뒤인 16일로 미루 평화당이 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된 것을 두고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탈당파의 '마지막 동지애'라고 평가한 반면, 유 대표는 정 대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당에 남은 중립파 조배속·황주홍·김광수 의원 3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 측은 중립파 의원들이 자신들과 함께할 것이라 각각 기대하면서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정 대표는 "(남은 5명의 의원) 열심히 뭉쳐서 함께 재창당의 길을 가겠다"며 "평화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평화당에는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만 남을 것"이라며 "박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니 '인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립파 의원 중 조배속 의원은 당 잔류를 택했지만, 황주홍·김광수 의원은 탈당을 포함해서 거취를 고심 중이어서 조만간 추가 이탈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공전하는 정개·사개특위

이달말 활동 종료...소위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평행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두 특위의 소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박주현 최고위원만 남을 것"이라며 "박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니 '인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립파 의원 중 조배속 의원은 당 잔류를 택했지만, 황주홍·김광수 의원은 탈당을 포함해서 거취를 고심 중이어서 조만간 추가 이탈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특위 활동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일각에서는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평화당 몫 정개특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평화당이 쪼개졌지만 정개특위·사개특위에 관한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선거제개편안의 경우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가 보장돼야 정개특위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소환된 30년전 '사노맹 사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조국, 국보법 위반 6개월 실형...인사청문회 쟁점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린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사노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현(現)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조국이다.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목표로 했다. 1991년 4월 박노해 시인이 검거된 데 이어 1992년 백태웅 당시 중앙상임위원장 등 40여명 가까운 인물이

이달이 구속되면서 해체됐다.

이런 경험을 반영하듯 조 후보자는 꾸준히 국보법 폐지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반공과 냉전이라는 단서포착 잣대를 사용해 진리와 양심을 제단하는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야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을 들어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정면으로 공격한 가운데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협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당정청 "1조6천억 규모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 면제"

일 수출규제 대책위 회의...긴급상황점검체계 내달 가동 테스트베드 확충 시작...소재부품특별법, 내달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

&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도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생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정할 '판제법'을 두기로 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메시지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로간 역할분담도 있어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현황 향후 계획,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협력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입 대응 긴급지원체계,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협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안철수 돌아오라"

바른미래당 내 조기 등판론 ... 파급력에 회의론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發) 정계 개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물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차안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이 나오면서 그의 등판 시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비당권파인 바른정당계 하태경 의원은 13일 "평화당 탈당 사태로 이제 정계 개편 마이 올랐으니 이제는 안 전 의원이 돌아와 유승민 안준규와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더 늦었다간 윤신의 폭이 줄면서 본인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권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파급력은 '첫잔 속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을 떠나 한동안 암중모색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잠시 소위 몸값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 그에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의 복귀 시점이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안 전 의원은 물론 안철수계 인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설불리 조기 등판했다가 당내 정쟁의 소용돌이에 갇힐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군 남면 모후산 우마리 대지 등 1021㎡ 조용한 생활 적합 4500만원
- 완도군 청산면 신촌리 대지 440㎡ 주택 53㎡ 수양생활 최적 45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불부베리 400여주 84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500만원
-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전원생활 적합 23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광양시 옥룡면 동굴리 산 4959㎡ 팬션적합 교환가능 4억5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을 세라리) 6645㎡ 조망좋은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은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관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11억 교환 22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진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추가는 환경호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남평을 드림길 모델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등 적합 17억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중 주거지 땅 4413㎡ 축합 2억4천 투자에 좋은 4억4천
- 신안군 암태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심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잠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은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점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